

'꿈의 원인' 직시...연기론 중시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보르헤스의 불교사상

20세기가 저무는 지금 보르헤스가 인구에 회자되는 이유는 그의 작품이 서구의 지식들에게 끼친 영향력 때문이다. 이상을 중시하는 헤르타와 계시를 중시하는 헤르타이즘 사이에서 사상적 변전을 거듭해왔던 서구사상의 흐름이 18세기 이후 계몽주의와 과학주의에 의해 이상 중심의 극단적 지적 편향을 보였을 때, 편협한 이상주의의 한계를 누구보다 먼저 예리하게 지적하고 그 극복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보르헤스이다.

며, 집착은 인간의 무지에서 온다. 여기서 보르헤스는 서구의 이상주의가 안고 있는 고를 깨닫고 그것이 신, 로고스 혹은 제일원인 같은 '근원'과 '중심'에 대한 집착에서 온 것이라고 보았다.

보르헤스는 근원과 중심을 추적해 보았다. 그것은 형이상학적, 공간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었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의 중심은 바티칸에

편지



김홍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상호텍스트 이론 정립

20세기 후반부에 세계 지식계를 리드하는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모리스 블랑쇼, 쥘레트 등 프랑스 후기구조주의 철학자들과 평론가들 그리고 존 가드너, 토마스 핀천, 존 바스 등 미국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사상적 원천으로서, 정신적 아버지로서 보르

헤스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보르헤스가 그들에게 끼친 공통된 영향은 그가 보여준 '이상주의적 이분법-주체와 객체, 자아와 차아-의 붕괴'이다. 보르헤스의 이런 사상은 물론 불교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불교에 대한 보르헤스의 관심은 (알레프)에서 보여준 불타 깨달음에 도달할 순간에 직면했던 시공을 초월한 세계의 모습에서 한결을 더 나아가 그 '깨달음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이성 집착하는 서구사상 대안 제시 색즉공 기초 '환상적 사실주의'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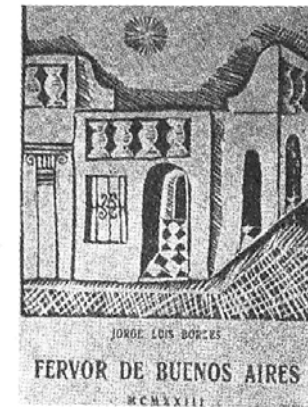
도, 예루살렘에도, 메카에도 없었다. 따라서 형이상학적인 중심을 추구할 수 밖에 없고, 그때 그가 만난 세계의 중심은 '한권의 신성한 책' 혹은 '도서관'이었다. 이때부터 보르헤스에게는 '도서관'의 이미지가 항상 따라다녔다. 그는 도서관에서 태어나, 도서관에서 살다가, 도서관에서 죽고, 도서관에 묻힌 작가였다.

그러나 그는 그가 추구했던 책과 도서관을 영원히 만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담고 있고 모든 것의 근원을 담보하는 한권의 신성한 책을 상상하면, 그 순간 그 책은 이미 다른 '책'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즉 어떤 책도 고유의 실체를 가진, 자성을 지닌 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책이 성립하려면, 언어의 체계가 사전에 필요하고, 언어의 체계는 인간의 사회가 형성되어야 하고... 즉 모든 책은 끊임없이 이전의 다른 책의 존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고, 존재의 연기성(空性)을 깨달아 진공정도(眞空正道)의 정관을 알겠다는 용수의 (중론)이 이룩한 '부정의 극복을 통한 대공정'의 가르침대로, 작가의 죽음이라는 부정적 상극은 '독자의 탄생'이라는 긍정적 창조를 낳는다. '소아(小我·작가)'의 죽음을 뒤에 따르는 '해방된 대아(大我·독자)'의 탄생은 문학행위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즉 한 텍스트에 대한 모든 권위와 도그마는 사라지고, 모든 텍스트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앞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은 자기만의 환하고 하위부위의 자성(유일한 해석)을 버



◇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열정' 초판본 표지



◇ '스피노자'란 소네트 형식을 가진 시의 원본

리고, 다른 텍스트들과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 종교다원주의적 발상이 짙게 된다.

제법무아의 시각에서 세계가 공이라고 하는 사상은, 객관적 현상을 실제로 인정하고 그 드러난 모습에 충실하려는 리얼리즘 문화과는 양립하기가 어렵게 된다. 보르헤스는 리얼리즘 작가들과는 달리 현실을 공(空)으로 보았다. 그는 '공'을 서구적인 용어 내에서 '환상(幻想)' 혹은 '현영(幻影)'으로 표현했다. 만일 현실 자체가 환영(幻影)이라면, 그 현실을 충실하게 그려낸 문학작품은 '환상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면 할수록, 그 작품은 더욱 환상적이 된다. 그는 자신의 문학을 '환상적 사실주의'라고 부른다. 환상적 사실주의는 '색즉시공'의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다.

제법이 무아라는 것, 제행이 무상이라는 것, 세상의 중심이 없다는 것 등의 생각은 현실에 대한 정직한 직시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다. 오히려 무아이기 때문에 모두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 무상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세계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보르헤스의 글들은 서구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의 씨앗을 제공했다.



맹란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물고기가 물을 만난듯 용솨음치는 기쁨으로 나는 그때 들떠 있었다. 심기일전하라는 뜻에서 광우스님께서는 기차표와 용채까지 내주셨다. 부산일대에 소문이 자자하던 경봉스님이 받고 싶어 초행인 극락암을 찾기로 하였다.

부처님 그늘 30년... 모든 인연 소중 살아온 날들은 나를 찾고 조절한 정진의 시간

감동병증발수행, 선타마운생서기 소재 열보 회향량'의 댓구(對句)였다. 거기서 있었던 아름다운 일 극락지일(極樂之日)을 기행문으로 쓰자 박경홍선생께서 불교신문에(66년 9월) 전문(全文)을 실어주셨다. 경봉스님께서 하룻밤 재워보라는 말씀이 계셨다가에 추억에 남는 일야(一夜)를 만들었던 것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내가 머무는 방이 삼락사(三樂寺) 석정스님의 방이었고 그때 스님께서는 출타 중이었다.

내 나이 스물다섯이었다. 그후 법원사 현호스님이 주관이 되어 서울 신문회관에서 있었던 전사회에서 석정스님을 직접 뵈게 되었으니 그로부터 5년뒤의 일이었다. 결혼을 하여 두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전근지를 따라 부산에 가게 되었는데 온천장 길거리에서 스님을 또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부산대학교 뒷마루에 살았고 스님은 금어일에 계셨는데 같은 동래구 장전동에서 자주 찾아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1973년부터 석정스님께서는 (신행회보)의 글을 연재해 주시게 된 것이다.

작년 겨울호로 대대원의 막을 내리게 된 (신행회보)지에 스님은 '신행불교회향'을 지어 보내셨는데 거기에 광우스님과 맹보살의 글을 보았다면서 '천우감로지기운(天雨甘露地氣潤) 난우직장향부진(蘭雨直場香不盡)'이라고 쓰셨다. 얼마나 또 깊은 불연

(佛緣)이던가. 차림차찌가 내 전생을 일러 비구나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속세에서 생사회상의 인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후, 나는 경봉스님 말씀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불교 일을 하게 되었다. 윗터라 없는 고아처럼 결혼을 하여 첫아이를 갖고 힘이 들었던 한달 반가량을 넘겨놓고 조산(早産)을 하게 되었다. 인큐베이터에서 한달을 넘겨놓고 집에 돌아온 아이는 그날밤 열이 40도를 오르 내리며 밤새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보채는 아이를 안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부처님께 약속을 드렸다. '부처님! 이시여, 10년동안 부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리나대로 종질이라도 할 터이니 이 아이 목숨만 살려 달라'

부처님 그늘 30년... 모든 인연 소중 살아온 날들은 나를 찾고 조절한 정진의 시간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이는 이틀이 지나자 점점 나아졌고 며칠 있다가 정각사 광우스님께서 우리 집으로 건너 오셨다. 청년법회를 지도하던 서운길선생이 학생들과 '소식지'를 만들어 왔는데 그것이 끊어지게 되었으니 해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 부처님의 응답

이시구나' 하고 그자리에서 약속을 드렸다. 10년을 채우고 나니 정수직업훈련원에 발령을 받게 되었다.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 6년간 국어교사로 재직했으나 형편이 어려워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의지처가 되어주라고 아가 부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더니 총정식선생님께서 '이것도 불은(佛恩)이었다' 하시며 넘겨주신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같은 날 같은데 벌써 26년이 되었다.

1969년 월간 (신행회보)를 만들면서 나는 부처님 말씀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 작업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시련의 시간이었으며 부족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정진의 시간이기도 하였다. 돌이켜 보면 나를 조절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아 들어가는 일에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목동청년회관에서 광우스님을 모시고 함께 지낸 3년동안도 불사이간 것이 없었다. 너무나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6 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개설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 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성철스님의 백일문(上, 下)을 부교제로 선택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8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강사

1년 교과목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밀교사상,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무진장스님(전포교원장),종법스님(승가대학교수),인환스님(동국대학교수),최봉수(동국대학교수),성본스님(동국대학교수),서운길(동국대학교수),한정식(불교학원장),장병조(동국대학교수),홍윤식(동국대학교수)
2년 교과목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정토사상, 법화사상, 화엄사상, 반야사상	정학스님(전포교원장),권기중(동국대학교수),한보경스님(동국대),알도스님(전포교원장)오형근(동국대학교수),김영태(동국대학교수),박홍(불교통신대학장),이민(동국대학교수),정승식(동국대학교수),권찬순(동국대학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 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교제제공)	1996년 1월 31일~1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합격자 개별봉부)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봉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총무원 불교회관 1층	통신반은 지방 거주 자나 출석수강이 어 려운자만 가능

4. 개강일시 1996년 2월 3일(토) 오후 6시(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및 동산반야회 사무국(732-1206~8, FAX: 732-1207)
◎ 서울: 보련각(조계사암): (733-0333) ◎ 부산: 불서보급사(246-4321)
◎ 대구: 삼영불교서점(425-4097) ◎ 대전: 보문서점(257-0151)
◎ 광주: 금강불교백화점(671-0451)

6. 원서접수처
본대학 사무국(110-170: 서울 중로구 견지동 45번지 총무원 1층)
※ 특전사항: 상기와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함.

대한불교 동산불교대학

대한불교 정토회 포교사양성 전문기관
제1회 1996학년도 입문반 및 연구반 1학기
본원포교사양성소 신입생 모집

신입생 모집 취지
한국불교의 전통인 원효스님의 통불교는 불교적인 모든 요소를 모아놓은 종합불교가 아니라 본원으로써 팔만사천 경전을 회동시킨 불교입니다. 그리고 본원이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본원을 모르면 불교를 알 수는 있어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본원을 포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1996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교과목

*입문반(전주 각 3개월씩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주 2회 강의)
전반 불교사입문, 불교교리입문
후반 불교경전입문, 불교신앙입문

*연구반(4학기 6개월씩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주 5회 강의)
1학기 *무량수경 *금강경 이행종 *실문화정론 유식사상
2학기 *정토경전 *화엄경 정토론 *무량수경종도 종관사상
3학기 *법화경전 *정토론주 *금강삼매경론 선택적 여래정사상
4학기 *법화경 인립집 *대승기신론소 최치문 교행신증

강사진
釋曉燮 스님 (전대학 교수, 현 대한불교정토회 회장)
釋雲齊 스님 (전대학 교수, 현 往山寺 주지)
석한담 스님 (전불광회 회장, 현 안국寺 주지)
釋道賢 스님 (현 光明寺 주지)
劉明鍾 박사 (전 동아대학교 교수, 현 명예교수)

이종후 박사 (전 영남대학교 교수, 현 명예교수)
사도시계 박사 (전대불교대학교 종교학 교수, 승려)
후지요시나리 박사 (현 일본용국대학교 불교학 교수, 승려)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입문반(6개월 과정) 00명
입문통신반(6개월 과정) 00명
연구반(2년 과정) 00명
연구통신반(2년 과정) 00명

*지원자격: 입문반은 불자로서 본 강의를 수강할 능력이 있는 자
연구반은 입문반 수료자 또는 동등한 실력이 인정되는 자
통신반은 지방에 거주하거나 강리에 참석할 수 없는 자에 한함

*접수방법: 이력서 1통을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함
우편 142-071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56-58
본원포교원 서원사
팩스: (02) 983-8017

*교부마감: 1996년 2월 20일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접수마감: 1996년 2월 28일 (마감일 소인 유효)

*특전: 1) 연구반 수료후 소정의 시험을 거쳐 본원포교사로 임명
2) 본원포교사가 되면 서원사를 중심으로 포교사 활동
3) 사찰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2년간의 연수기간을 거쳐 서원사의 지원하에 사찰운영 가능

*문의: 907-6003, 997-6905, 906-6082, 988-7484
*개강: 1996년 3월 2일
*수료료: 입학금-3만원, 입문반-각 과목 당 10만원
연구반-각 과목 당 20만원

대한불교 정토회 본원포교원 서원사 부설 본원포교사양성소